

유럽 악안면외과학회에 참가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 중 원

지난달 9월 13일부터 독일에서 개최되었던 유럽악안면외과학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서울치대 김중원 교수께 기고를 요청하여 악안면 외과영역의 세계적인 추세와 연구경향, 그리고 미세수술의 임상적 응용을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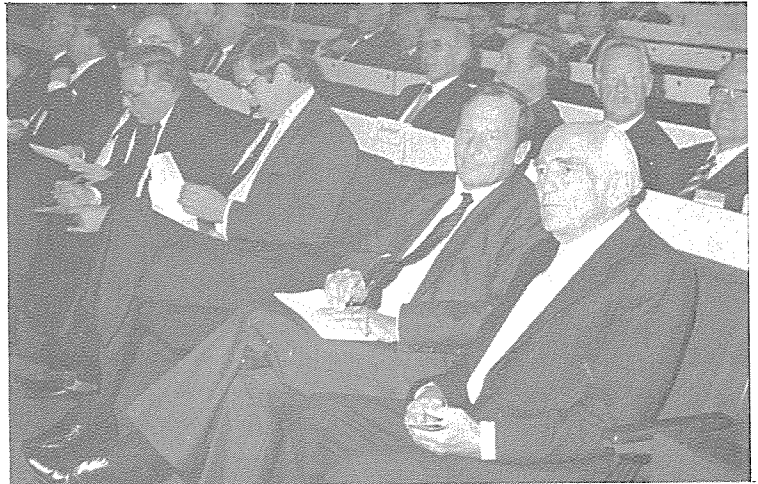
20여시간의 지루한 비행끝에 서독의 최대도시 함부르크에 到着한 시간이 9월 12일 일요일 이른아침 7시30분, 안개가 자욱한 함부르크의 국제공항은 筆者의 두번째 방문으로 그리 낯선곳은 아니다.

입국수속을 끝내고 공항을 빠져나와 옛 친구 Krell씨 내외와 조박사의 반가운 마중을 받으며 그들과 동승 Krell씨 태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약된 숙소인 프라자호텔에 여장을 풀고 곧 학회 등록를 마쳤다.

학회는 이도시에서 가장규모가 큰 Congress Centrum Hamburg (一名 C. C. H. - 작년에 국제치과 학회가 개최되었던 場所)로서 우리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 해당되는 국제회의 장소로서 大, 小회의장 8개와 4개의 전시실 및 식당, 호텔등 각종부대시설을 갖춘 국제 회의장이다.

학회의 연역 및 성격

본학회의 公式名稱은 European Association for Maxillofacial Su-



▲ 개회식 직전에 참석한 외국의 석학들의 모습 : 독일 슈하르트교수, 스페인 바렌시아교수등이 개회식을 기다리며 前列에 앉아있다.

rgery(E. A. M. F. S.)의 정기학술대회로서 순수학술회의라고 볼수 있다.

본학회는 1970년 3월 19일 스위스 슈리히에서 창립된 이래로 每 2년마다 개최국을 바꾸어 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학회를 창립할 당시 영국의 구강외과의 태두 Rowe, 불란서의 Tessier, 독일의 Schuchardt, 스위스의 Obwegesser등이 주축이 되어, 동구 공산국가는 물론 전 유럽각국

에서 134명의 구강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창립되었다.

오후 창립회원 이외에 유럽지역에서 128명과 유럽지역이외 세계 각국에서 68명이 이회에 가입하여 현재(1982) 330명에 이르고 있다.

12년동안 유럽지역에서 128명, 세계각국에서(유럽지역 제외) 68명 밖에 新規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事實만 보아도 이학회의 학문적인 성격을 알수있고 小數精銳



▲ 개최식이 있던날 Atlantic Hotel에서의 환영파티 : 회장 파이퍼교수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主義를 지향하는 순수 학술 단체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유럽악안면외과 학회이니 만큼 유럽지역의 구강외과 의사 보다는 유럽지역이 아닌 여타 각국 사람으로서 회원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세계각국에서 회원이 가입되었기 때문에 언어사용관계의 不便은 英, 拂, 獨, 스페인어 圈으로 分類되어 있어서 영어사용국가의 위원(councillor)은 영국의 Sowray교수가, 불어사용국 위원은 Delaire교수가, 독어사용국은 Pfeifer교수가, 스페인어 사용국은 Alonso del Hoyo교수가 각각 분담하여 맡고 있다.

따라서 이들 회원은 치과 의사 뿐만 아니라 非齒科醫師 즉 성형외과, 정형외과, ENT, 소아과의 사등도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명실공히 악안면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을 총망라 해서 다루고 있는 실정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학술적이고, 가장 구강외과적인 학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회의 규모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회의 규모는 유럽국가의 악안면 구강외과 의사들이 그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스케일에서 볼때 범 세계적인 학회인 고로 해서 세계각국에서의 new technique과 학설이 즉시 이窓口를 통해서 發表가 되고 실제로 本學會를 통해서 發刊되는 “Journal of Maxillofacial Surgery”(영어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자랑하며, 그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10여개의 여타잡지의 추종을 不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함부르크 학회에는 세계각국에서 580여명이 참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학회회원이 모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非會員이 25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볼 수 있다.

요는 학회의 물리적인 규모보다는 그 내용의 질에 더 강점을 두고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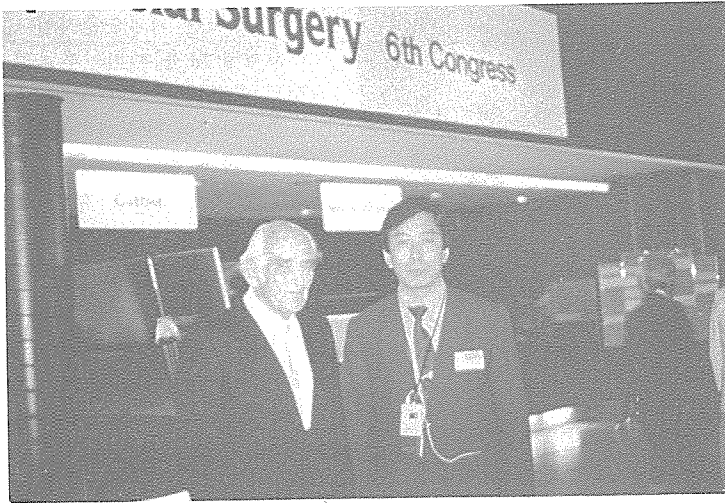
9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계속해서 개최된 본 학회는(보통 2~3일간 임), 第二, 第六 강연장에서 口演이 되고 第八 강당에서 계속 수술영화가 상영되며 第四, 第七 강당에서 포스타 전시와 각종 수술용기구, 도서전시 학회기간중 계속되었다.

학회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여 5시30분에 끝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으며, 특이하리만큼 진지한 강연 태도와 청중의 태도에 다시금 감복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발표내용과 모든 학회의 진행



▲ 9월15일 第6 학회장의 5人的 좌장들 : Merville(拂), Macintosh(美), 筆者, Anker(호주) 교수등이 오전중의 사회를 보고있다.



▲ 老益장의 Schuchard 교수 : 그의 나이 80歲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학회장 맨 앞줄에 앉아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역시 그는 세계적인 구강외과 학자요 독일 구강외과의 대명사임에 틀림없다.

은 英, 獨, 拂語로 同時 通역이 되었고, 아침에 참석한 청중의 數와 저녁 5시30분에 헤어질수 있는 참석자의 수가 거의 비슷하리 만큼 전연 학회에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있다.

학회일정 및 발표내용

학회시작 첫날에는 독일 대통령의 축사(대독), 학회장 Pfeifer 교수의 환영사, 독일의사회장, 독일치과의사회장등등의 축사등이 낭독되었고 개회식중에는 그 유명한 함부르크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개회식을 빛내기도 하였다.

개회식이 있던날 학회장 조대의 Welcome party가 부부동반으로 Atlantic Hotel에서 개최되었던것 이외 에는 이렇다 할 특별한 余興 Schedule같은 것도 別로 없이 그 특유한 게르만 스타일로 학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총 연제수는 381 演題에 그밖에 film program 연제, poster 전시연제 등이 發表되

었다.

그내용을 分析해보면,

- ① Musculocutaneous Flap
- ② Free Flap, Microsurgery, Reconstructive Surgery
- ③ Free Bone Transplant
- ④ Craniofacial, Esthetic Surgery, Cleft Lip and Palate
- ⑥ Orthognathic Surgery
- ⑦ T. M. J. Surgery
- ⑧ Tumor

⑨ Dentoalveolar Surgery

⑩ Traumatology

등으로 大別해서 分類할 수 있었다.

이들 총 381연제 中 그 연제수나 내용으로 보아서 역시 main focus는 조직이식과 reconstructi-on에 따른 microsurgery가 아닌가 싶다.

特講은 7연자의 초청에 의해서 학회의 high light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① ST. J. Mathes(미국) : Current concepts in head and neck reconstruction

② E. Barwick, etc(미국) : Microsurgical Composite tissue transplantation ; Reconstruction of the head and n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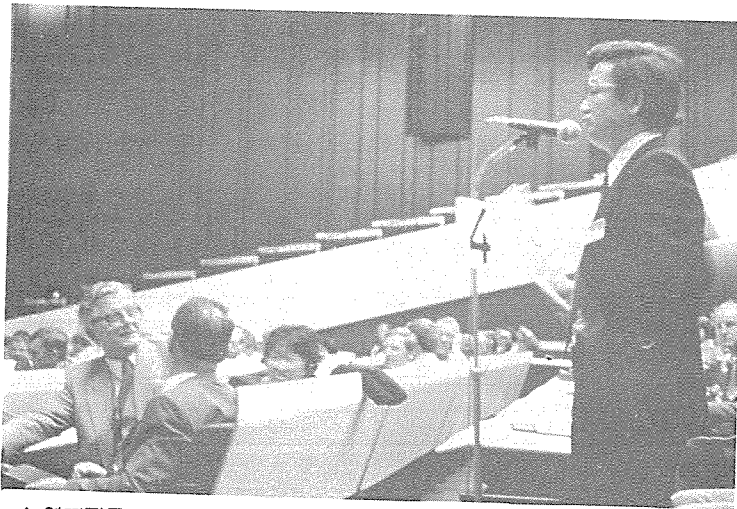
③ G. I. Taylor(호주) : Mandible reconstruction with free composite iliac bone grafts

④ P. Tessier(불란서) : Late results after cranio-facial osteotomies

⑤ E. Tardy(미국) : Principle of esthetic nasal surgery



▲ 개회식 광경 : 함부르크 모찰트 교향악단의 단상연주와 유럽악안면 외과 학회이사들이 단상에 앉아있다. 연주곡은 모찰트 심포니 #41 C장조 (一名 쥬피터 심포니) Allegro Vivace



▲ 열띤질문, 응답의 순간들 : 연자의 발표시간보다 토론시간이 더길고 열기가 있다. 질문을 던진 Obwegesser교수(앉아서 뒤돌아 보는데)와 답변을 못하고 있는 마이크 앞의 연자인 日本대학의 모교수 및 답변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연자를 쳐다보는 정중의 안타까운視線이 交叉되고 있다.

이 특강연제 중 특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연제는 Tessier (불란서 구강외과의 태두)의 연제이었는데 확실한 그의 나이는 모르지만 몹시 노인임에도 "Ocular hypertelorism"에 대한 Surgical correction report를 하는 모습을 볼때, 물론 그 수술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 老人(?)의 진지한 학문적 태도는 상당히 감명적이 었다.

호주의 Taylor 教授의 "Mandible reconstruction with free composite iliac bone grafts"는 학술적으로 전연 새로운 것은 물론 아니지만 Cancer Surgery후 head and neck에 광범위한 欠損部分에 대한 iliac bone, muscle, fat skin의 composite graft를 vessel anastomosis에 의하여 즉 inguinal vessel anastomosis에 의하여 欠損部를 補填해주는 술식을 임상증례를 곁들여서 報告하였다.

우리한국의 現 實情으로 볼때 resin graft나 free bone graft를 해춤으로써 resin에 대한 allergy나 生骨組織의 吸收와 감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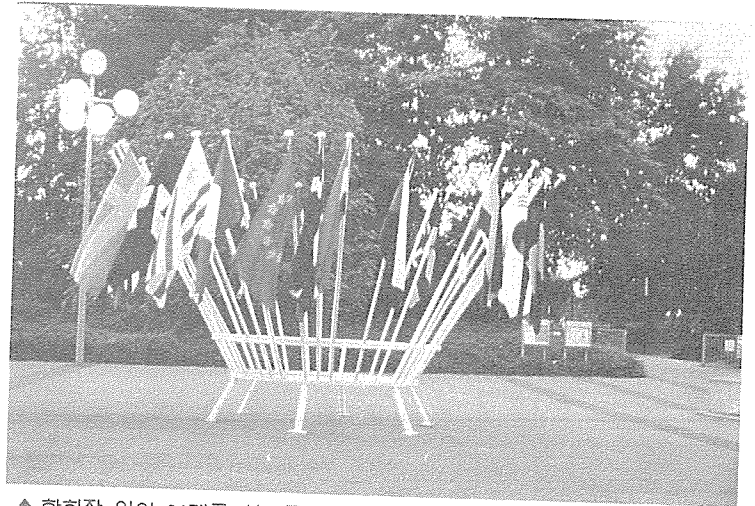
인해 移植片을 除去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해온 터에 우리나라에도 하루 빨리 microsurgery에 의한 신경, 혈관, 吻合手術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밖에 Walter교수의 T. C. P. bioimplant material의 nasal reconstruction이라든가 불란서 Mahe 교수의 기능적인 비성형술에 관한 논문, 오스트리아의 Fries 교수에 의하여 발표된 비중격연골

기형에 대한 외과수술적인 교정 치료술등 많은 이비인후과의 연제도 발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頸部와 顔面部의 老化皮膚에 대한 成形에 관한 새로운 試圖에 관한 研究報告도 있었다.

特講演士는 Tessier교수를 除外하고는 모두 非유럽지역에서 초빙되어 왔지만 特講은 아니라하더라도 Obwegesser교수에 의한 free fat tissue transplantation (遊離脂肪層移植術)과 몇일전 筆者의 초청에 依해서 한국을 방문한바 있는 Wurzburg대학의 Reuther교수에 의한 "Microvascular transplantation of small intestine for reconstruction of the oropharynx에 대한 3'년간의 통계보고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Hausamen교수 (Hannover大學)에 依해서 發表된 "Indications for microsurgery of nerves in maxillofacial surgery 10 years of experience"등은 이학회발표의 high light라고 볼수 있으며 筆者에게는 여간 감명깊은 연제가 아닐수 없다.



▲ 학회장 앞의 34개국 참가국 깃발들 : 태극기도 수줍은듯 방긋 태극 무늬를 내보이고 있다.

구강외과 학문의 추세와 그 발전방향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지역에 있어서의 구강외과학의 발달은 가위 세계적 첨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이유는 과거 구강외과계의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시술법등은 그 대부분 유럽지역에서 起源되었던것이 많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오히려 美國보다도 더 急進의인 템포로 발전해 나가고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며 실제 발표내용을 보더라도 전연 학계에 보고되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학설과 기술이 本學會에서도 엿볼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40~50년대의 갖가지 cleft lip과 cleft palcte수술법, 1930~40년대의 oral cancer에 대한 처치법, 1950~60년대의 orthog-

nathic surgery의 새로운 수술기법의 발달이 사실상 실제로 유럽에서 그 발상을 찾아볼 수 있고 그러한 창의성이 1970년대 악안면 영역에서는 갖가지 조직이식으로 통하는 혈관, 신경 吻合手術에 依한 微細현미경수술의 발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筆者의 豫見으로는 1980년대에는 微細手術의 臨床的 應用이 한껏 發達될 것 같고 이것이 계속 개발, 發展되어 악안면 영역에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응용될 추세가 아닌가 예측해 본다.

만약 이와같은 假想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나라 한국의 구강외과의 現實에 再照明해 볼때 hug-ameloblastoma를 제거 했다가 下顎이나 上顎에 악성종양을 제거했다는 등의 단순한 除去手術에서 종래와 같은 free iliac bone을 이식해주고 合成樹脂를

移植해 주므로 해서 부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해결 될수 있는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겠나 하는 展望을 해볼수도 있겠다.

완전에 좀더 가까운 reconstruction과 rehabilitation을 기능적인 면에서 혹은 심미적인 면에서 進一步해볼 부푼 꿈이라 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한국 에서도 어서 빨리 미세수술이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뚜듯한 기대와 책임감을 느낀다.

과거 1980년도에 폴란드 와르샤와에서 개최되었던 本學會가 2年后 오늘에서 독일 함브르크에서 구강외과의 학술발표 도장으로 큰 역할을 했고 2年후 불란서 파리에서는 좀더 進歩된 學會를 개최하기로 마음을 굳히면서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만 5일간 熱면 霧圍氣속의 함브르크 학회의 幕은 내렸다.

※ PATIENTS CHART

一般患者診療用 Chart로서 1組가 各色 (白·黃·紅·靑·綠) 5卷 (100枚)

※ 醫療保險者 診療簿 (保險Chart)

※ 청구명세서 (연합회 용) (관리공단 용)

※ 진료비 청구서

※ 齒科醫療原帳
齒科医院用으로 特殊製作한 帳簿임.

購入處 : 現代醫學社 (우편번호 100)

서울·中區 仁峴洞 2街 181-1 (세운빌딩 201호)

☎ 266-8398 · 二六六 · 八三九八

서울市 外는 郵便注文 (送金 “을지로 4가 우체국”)이 있으시면 即時 郵送합니다.